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28년 만에 쓰는 자술서

회나 국제정세 분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아쉽게도 거사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 몇 차례나 연기되었다. 78년 가을, 서울대 교내 수사과정에서 연합시위 모의내용이 전모가 드러나고 각 학교 대표들까지 검거되면서 연합 시위는 모의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고대 출신 구속자 75학번 김성남 씨는 새문안 교회의 활동가로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나 서울대와 역할 분담과정에서 구속되었다.

물론 대학 연합 시위가 당시 역량을 무시한 시기상조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신 독재정권의 최신 병기였던 긴급조치가 75년에는 위력을 발휘하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약발이 떨어지면서 77, 78년에는 각 대학의 역량이 강화되어 가는 추이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78년 초겨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노란 딱지를 붙여 요시찰로 표시하였다. 절도죄로 들어온 소년수가 대학생 신분인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자기 인생살이를 얘기하던 중 내게 말했다. 겨울 살기는 차라리 교도소가 좋다고 말이다. 긴급조치를 둘러싼 공방전만이 우리의 전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요즘 얼마만에 보는 지인들한테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은 최악이다. 혹시 스스로 긴급조치 훈장으로 달고 다니면서 행세하려는 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진실로 긴급조치를 기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의와 싸우고 우리 시대의 과제를 실천하는 일 뿐이다.



정상시_ 한신대 신학과 75학번.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회장, 기독교사회운동연합 부회장, 가장생명선교연대 회장, 한국기독교청로회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안민교회 담임목사(현)

오랜 만에 자술서를 쓰는 기분이다. 28년 전, 그때의 자술

서는 말이 자술서지 사실은 타술서였다. 30년 만에 비로소 사건에 대한 자술서를 쓰게 된 셈이다. 긴급조치9호 30주년 이제야 그때를 돌아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확보된 게 아닌가 싶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건을 돌아보고 역사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모양이다. 성경의 복음서도 예수의 사후 30년쯤 지나 편집되고 집필되었다. 나에게 긴급조치9호는 무엇이었나? 한마디로 불행이자 행운이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이 나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주었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본론에 들어가겠다.

사건 전야 항

1977년 4월 7일,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이 일어난 전후 상황을 잠깐 일별하고자 한다. 나는 1975년 한신대에 입학하였다. 봄꽃이 만발한 수유리 캠퍼스에서 낙원같은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낙원(?)에서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한달 만에 학교 교문에 빗장이 쳐졌다. 한신대 휴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같은 날 고려대 휴교령과 한신대 휴업령이 긴급조치7호와

함께 내려졌다. 많은 선배들이 제적을 당하고 안병무, 문동환 교수님도 해직되는 상처를 남기고 몇 달 후 학교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들의 분위기는 강간당한 처녀꼴이었다. 상처만 남았다. 정보과 형사들이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프락치 시비도 있었다. 그해 제일유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이 터졌다. 제일동포 한신대 유학생 김철현을 비롯한 나도현, 김명수, 전병생 선배가 구속되었다. 충격이 컸다.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있었다. 한신대의 안병무, 문동환 교수님은 물론 문익환, 윤반웅 목사님, 서남동 목사님, 이우정 교수님, 이해동 목사님 등 주로 한신대 선배 목사님들이 구속되었다. 매주 목요일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가 있었고 구속자들의 소식이 구속자 가족들이나 NCC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졌다. 독재의 만행이 고발되었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였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기지 역할을 감당한 교회들도 많았다. 서울 제일교회(박형규 목사)나 한빛교회 등은 그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지방에서도 한신대가 속한 기장교단 교회들이 반유신 민주기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들 교회 대학부나 청년회를 통해서 다른 대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이미 수도권 특수선교회가 있었고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배경도 있었다. 기독교청년협의회(EYC)나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등의 활동을 통해 제적, 구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신대 선배들이 직간접으로 많이 연관되어 있었다. 적어도 1970년대 한신대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고난 공동체의 역할을 열심히 하였다. 이런 사건들이 1977년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남보다 특별히 용기도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별 것 아닌 것을 그렇게 사건화시키고 몇 년씩이나 징역살이를 시켜준 긴급조치9호 때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물론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사주한 것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시대의 억압을 참지 못해 고향을 지르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 합성이 77년 한신대 고난사건이었다.

사건과 나의 법 무부 대학생활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으로 불리는 우리 사건은 1977년 4월 7일에 한신대에서 일어난 유신반대 시위사건이다. 그때 발표된 성명서 제목이 고난선언이다. 선언문 초안자는 김하범이

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유신철폐와 긴급조치9호의 해제는 물론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검찰은 우리 사건을 긴급조치9호 위반과 함께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심하게 놀랐다. 나중에 반공법 위반 조항은 재판과정에서 없어졌다. 우리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유신정권은 대학마저 학생회를 없애고 학도호국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신대 학도호국단이 유신정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으니 당국도 좀 당황했을 것이다. 그것도 목사 후보생들로서 신학대학 학생들이었는데 반공법 위반이라니 역설적으로 반공법의 약효를 많이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우리 사건이 일어난 때는 교회력으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는 절기였다. 그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교의식 보다는 고난주간답게 가장 잘 지키게 되었다. 오용식, 이영재, 김하범, 김현수, 정상시, 5명이 구속되었다. 우리 사건의 후속 사건 격으로 5월에 또 다시 교내 시위가 있었다. 구속 학우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유신 시위였다. 또 4명이 구속되었다. 김광훈, 진철, 박창수, 임성현이 그들이었다. 박창수님은 후에 건강악화로 많이 고생하다가 200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구속과 그 이후 시대의 질고로 인한 병고 때문이었다. 긴급조치로 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1978년 봄에도 노창식, 김희택이 또 구속되었다. 점점 법무부 대학생이 늘어났다. 교내 시위만이 아니라 교회나 종로 5가 기독교회관을 중심으로 구속 인사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와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인태선 등 많은 한신인들과 기장인들의 구속이 이어졌다. 1979년 10.26 사건까지 숨막히는 억압과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유신반대 시위가 이어져 나갔다.

나는 서대문구 현저동 105번지 15척 담장에 둘러싸인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법무부 대학에 입학한 셈이었다. 9사하로 기억되는 감방으로 들어갔다. 방문 앞과 재소자복 상의에는 수번과 함께 노란 딱지를 붙여놓는다. 요시찰 인물이라는 표지이다. 빨간딱지는 반공법 위반 표시였다. 일반 재소자에게 함부로 대화를 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표 같은 의미도 있었다. 뽕끼통(변기통)이 있는 방이었다. 감방에는 몇 개의 통이 있다. 식구통이라고 하는 배식구가 있었고 쾌통이라고 불리는 누름판이 있다. 교도관을 호출할 때 쓰는 나무 막대기였다. 버튼의 일본식 발음이 아닐까 싶다. 소제라고 불리는 청소와 배식을 담당하는 기결수의 위세가 상당

했다. 소제에게 잘못 보이면 배식 등에서 암암리에 피해를 받기 십상이었다. 우리는 몇 달 후 성동구치소로 이감을 갔다. 새로 지어진 구치소였다. 서울 북부지청 박 아무개 검사가 우리를 조사했다. 협상국은 인상이었다. 우리는 독방생활을 하였다. 요시찰 인물용 독방 사동이였다. 서울구치소와 달리 동지들이 같은 사동에 있어서 들며 나며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1976년 한신대 시위 준비 중에 기소중지되었던 박남수 선배도 합류하여 10명 이상의 동지들이 한 사동에 있게 되었다. 물론 독방이었지만 교도관 눈을 요령껏 피해가며 함께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책을 돌려보기도 했고 소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운동 나갔다가 손바닥만한 신문조가리라도 발견하면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한 이틀쯤 그 신문쪽지로 바깥 사회 정세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제일 재미있는 시간은 면회시간과 교도관 몰래 하는 통방시간이었다. 주로 저녁식사 직후 뒤쪽 화장실 좁은 문틈에 매달려 서로 안부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때로는 진지한 토론도 있었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었다. 성동 구치소 시절 생각나는 사람 중에 막걸리 반공법과 사회안전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었다. 막걸리 반공법은 막걸리 취해 박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말하다가 구속된 것이었다. “박대통령이 여배우 아무개와 재미봤다 카더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유포한 혐의였다. 사회안전법으로 들어오신 분은 반공법 위반으로 20년인가 30년의 형기를 이미 마쳤는데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다. 참 어이없는 징역도 많았다. 장기수들의 식사는 보통 두 시간이상이었다. 그렇게 해도 위장이 상하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밥과 반찬을 씹고 또 씹어 물이 되었을 때 삼킨다고 했다. 교도소 밥은 콩이 섞인 보리밥이고 반찬은 오경찬이라고 불리는 장아치와 국인데 주로 짠 편이다. 나도 따라한다고 씹어 보았는데 쉽지 않았다. 하루 십분에서 삼십분 정도 운동시간을 준다. 방 안에서도 철창 잡아당기기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철창이 인삼녹용이라는 말을 한다. 책도 읽고 요가도 한다. 면회올 때 필요한 책을 요청하기도 한다. 밖에서 여러 고마운 분들이 가끔 책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셨다. 정작 어머니가 면회오실 때는 무엇 넣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의 구속으로 너무 충격을 받으셨지만 차츰 적응을 해 가셨다. 다른 구속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으셨다. 특히 명동사건 등 나보다 훨씬 중형을 받은 분들의 가족들이 담대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셨던 것 같다. 구속자가족협의회(나중에 민주화가족협의회)에 자주 출입하셨다. 데모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주요 구호는 “이놈들이 우리 아들 내놓아라!” 였다. 보수적 신앙의 어머니는 데모하는 신앙공동체, 전혀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경험하신 것이다. 박용길 장로님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어머니 안부부터 물으신다. 항소 후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감왔다. 유난히 추웠던 77년 겨울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78년 봄, 형이 확정된 우리는 뽀뽀히 이감되었다. 나는 2년 징역형이었다. 마침 일어난 서울구치소의 배식 투쟁으로 인해 다른 많은 학생과 민주인사들이 지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마산 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마산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은 고 이범영님, 설훈님, 장기표님 등이었다. 서울대 서익진님, 김창호(?)도 기억에 난다. 포승줄에 묶여 함께 호송차를 탔던 분들 중에 고려대 이민구님이 기억에 남는다. 서울구치소가 빈대로 악명이 높는데 마산 교도소는 모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기라키보다 벌과 같았다. 나는 78년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아 형기를 남겨놓고 마산교도소를 출소를 했다. 1년 4개월 만에 출소 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495일 만이었다. 5명 중 나와 김하범만 출소했다. 동지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밖이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출소 다음날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온 손님은 정보과 형사였다. 담당형사는 종종 들러 근황을 묻곤 했다. 그때 쯤 몸도 많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고 이범영 등과 함께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주최한 한빛교회에서 열린 석방환영회 참가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건 이후의 나의 삶

나는 출소 후 교단의 배려로 서대문 기장 선교교육원에서 중단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곳은 아주 특별한 학교였다. 해직교수와 제적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였다. 졸업장은 기장 교단에서 한신대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 주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커리큘럼은 신학 외에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서남동 교수가 원장이셨고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이문영, 박현채, 이영희, 이우정 등 귀한 분들이 강의를 해주셨다. 78년 하반기 쯤 함께 공부한 사람들 중엔 나상기, 유상덕, 이종원, 양관수, 권오성, 박준엽, 김 윤, 오세구, 이원희, 신대균, 박성훈, 이대수, 이상익, 박몽구님 등이 기억난다. 일반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다. 유신의 억압이 강할수록 민중의 저항도 거세게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의 저항과 함께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마침내 10.26 사태가 일어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서 신근부가 등장했고 광주민중항쟁 등이 있었다. 한신대 후배였던 류동운 열사가 광주도청을 시수하다 계엄군의 총에 희생되었다. 미친 역사였다. 80년 봄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무덤과 같은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80년 10월 8일, '한신대 피의 선언'은 그 절망적 침묵을 깨는 함성이었다. 나는 '피의 선언' 성명서를 초안하기도 했다. 전교생 200명이 북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많이 맞았다. 죽는 줄 알았다. 나는 그 주모자격으로 계엄포고령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20여개월 뺨(?)을 살고 82년 8월 15일에 특사로 석방되었다. 별 두개를 달았고 법무부 가방 끈이 길어진 것이다. 두 번째 뺨(?)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다.

출소 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여러 활동과 모색의 시간을 가진 후, 나는 1984년 교회로 돌아왔다. 그동안 한신대 긴급조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동지들이 자주 모였다. 보다 실천적인 일을 찾는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나를 비롯한 동지들은 1985년 민중교회 협의회를 만들었다. 민중의 고난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권력형 교회가 아니라 낮은 자리의 교회, 교회의 본모습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운동이었다. 우리 동지들은 거의 매주 모였다. 차츰 이론과 실천을 갖추고 조직적 확산도 이루었다. 민중교회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1987년에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교단별로 기장의 생명선교연대, 예장의 일하는 예수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여개 민중교회가 있다. 특히 기장의 경우는 그 출발이 긴급조치9호 뺨잡이들이 그 창립 멤버였다. 민중교회는 노동자, 빈민, 농민의 교회, 혹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고자 했다. 다양한 선교사업을 하였다. 저도 1987년 안양 박달동에 박달교회를 개척하였다. 노동상담소, 야학, 무료진료소 등의 프로그램을 하였다. 20여 평 되는 좁은 공간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뺨뺨이 앉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거나 기타교실 등 문화교실을 했다. 함께 노래도 많이 불렀다. 이로 인해 건물주나 주변으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다. 구속자 대책활동도 많았다. 설교와 예배만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목회활동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활동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중교회운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신앙공동체의 끈을 갖추어가면서도 가출 청소년센터, 외국인노동자 센터, 독거노인을 위한 쉼터, 성폭력 상담센터, 광산촌 선교센터,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공부방 혹은 아동희망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런 일들의 한복판에 긴조9호 동지들이 있

었다. 나는 지금 안양에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다. 긴급조치9호의 원체협이 오늘의 나의 목회활동에도 녹아있다고 자부한다. 운동적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민교회 담임목사로서 또 안민이동희망센터와 은빛사랑방을 운영하는 안민희망사랑동지 대표로서 일하고 있다.

생각나는 사람들

70년대 긴조9호 시대,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이 더 그렇다. 그들은 유명한 열사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름없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기에 더 애뜻한 이름인 것이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일른 생각나는 사람들로 한신대 박창수님, 서울대 조남일님, 이범영님, <녹슬은 해방구>의 저자 국민대 권운상님도 생각한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어떤 향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다. 이범영님은 78년 8월 마산교도소에서 함께 석방된 후 자주 만났다. 병역대책위원회 관계로 연락도 자주 했다. 어느날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시 수배를 받게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내가 은신처를 주선해 주었다. 우리 친형의 애인집이었다. 지금 우리 형수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였다. 구속된 사람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긴급조치 연대'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생각나는 사람들은 뺨잡이들 뒤에서 도움을 주고 고생하셨던 분들이다. 그런 분이 참 많았다. 재판을 꼬박꼬박 방청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기도해 주고 영치금도 넣어주었던 수많은 학우들과 교우들과 선후배들...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다. 고난의 떡을 함께 나누었던 순수했던 영혼의 소유자들이 있었기에 내게는 긴급조치9호 시대는 불행이자 행운이었다.